

# 공간오브제에서 해체주의 유형적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Design Elements in the Space Object

구 상\* / Koo, Sang

### Abstract

The overall trend of the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variety and de-unification shows many differences from that of modernism which is concentrated to rationalism. The deconstructionism which is driven by the variety and the emotion largely characterizes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deconstructionism is founded on the post-structuralism that object to the language system of the structuralism.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products are deconstruction of meanings, deconstructuralism of the form by the use of material, new material, deconstruction of metaphor and way of expression, deconstruction of propor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as. The design elements of the deconstruction are re-defying the function, changing shapes, the structures, metaphors, denying of the golden proportions and the emphasizing the kitsch elements.

From the various style, the kitsch style is a phenomenon that comes from the way of representing emotion, inspiration, understanding of the popularity, and the authority of consumers for choice.

**키워드** : 해체, 키치, 의미, 표현방식

### 1. 서론

다양성과 탈 획일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 전반적 경향은 그 외양적 모습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했던 모더니즘의 그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기계시대(The Machine Age)를 비롯한 서구의 공업화와 산업화 초기의 특성은 규격화와 통일성을 가치의 중점에 두었다. 오늘날의 다변화와 감성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순수예술지상주의를 지향하는 해체주의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경향이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구조주의 언어체계에 반대하는 탈 구조주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현대의 공업제품과 건축물에서 나타난 지나친 양식주의와 정통적(orthodox) 요소들에 대한 식상함과 반발, 또한 물질 우선주의에 대한 반사적 제시의 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양식인 키치(kitsch)와 하위문화(sub-culture)적 속성들이 다양한 제품과 오브제들을 통하여 다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혼재 속에서 어느 대상에 대한 평가-비판이든 아니든-를 제시할 겨를도 없이 또다른 다양

한 형태의 출현으로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초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으로 시작되어 파스텔주의 색채와 기하학적 조형 요소들로서 대표되는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나다가, 이것 자체도 점차 양식화되어 새로운 즉물주의(即物主義)로서 획일화되고, 여기에 대한 표현 양식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제시되는 것이 해체적 요소와 키치(kitsch)적 경향을 가지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능적 요소와 양식적 스타일 요소간의 비중이 첨예한 대립의 관계로 공존하는 실내 오브제들 중 의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출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어떤 디자인 개념에 의해 생성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키치적 조형표현으로 이어지는 연결성과 그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밝혀 이들의 모습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해체주의의 생성과 그것의 조형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 그들의 표현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그러한 양식으로써 여러 문헌상에 제시된 공간 오브제들을 분석하였다.

\* 정희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디자인전공 교수

## 2. 해체주의의 이론적 분석

### 2.1. 생성 및 발전

세계 제2차 대전이후로 유럽사회의 커다란 영향을 끼친 실존주의에 필적할만한 구조주의가 프랑스에서 새로운 과학운동으로서 나타났다. 구조주의는 언어를 모든 체계의 기본으로 설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y-Strauss)의 구조인류학,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문예비평 등의 영역으로 개척되어 나갔다.<sup>1)</sup>

언어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와 같이 구조주의는 개개의 특성보다는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체계나 문법, 또는 그 구조의 발견에서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언어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 즉 문학, 인류학 등을 연구할 때에도 적용되어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체계나 법칙의 틀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조주의에서는 주체는 자립적 실체일 수 없으며,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는 이러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구조주의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도 구조적 관계를 통한 사고의 원리는 유지되고 있었다. 탈구조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해체' 이론을 통하여 구조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탈구조주의조차도 '해체'로써 비판하였다. 그의 해체 이론은 서양 철학의 중심이 되어왔던 이성중심주의(Logo centrism)를 비판하였으며, 철학, 문학, 예술 등의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확산을 통하여 해체는 포스트모던 경향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 2.2.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징

해체이론은 의미와 기호의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의미'는 주관에 의한 허구일 뿐이다. 구조나 기호의 개념은 의미의 중심이 현전(現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크 데리다는 이것을 하나의 환상이며 대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추구하는 데리다의 이론은 '구조'나 '총체성'에 대한 저항으로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중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이론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2)</sup>

#### · 흔적(trace)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흔적으로서 항상 유보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제로 제시되는 것도 실상은 허구이거나 은유일 뿐이다. 이 개념은

해체주의 디자인의 구성에 있어서 콜라주, 덧쓰기 등의 기법으로 적용된다.

#### · 탈중심주의(decentering)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하여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한다.

#### ·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며, 문장에서 의미의 형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고 본다.

#### · 차연(difference)

데리다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재현행위는 결코 '그것'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것'과 차이가 나고, 그것을 보유,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 개념이다.

#### · 산중(dissemination)

산중이란 본래 종자가 출생지로부터 다소라도 멀리 떨어져서 여기저기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에 의해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된 장에서 떨어져 나가 곳곳에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 작용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가리킨다. 또한 산중은 모든 사항을 잠재력으로 보완하고 무한히 치환하게 하는 이론인 동시에 그것의 실천이다.

### 2.3.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징

해체주의 디자인의 형상적 특징은 수직, 수평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하여 왜곡을 일으켜 기존의 '중력'의 개념에 부응하는 형태 및 공간의 경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개념들은 탈 구성적 표현(decomposition), 탈 중력적 표현(decentering), 그리고 불연속적 표현(decontinuity)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특징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형태의 중첩성

해체주의 양식에서는 조형적 창작 요소로서 형태의 중첩 방법을 사용한다. 중첩성은 구체적으로 방향성, 전환성, 투명성, 지향성, 중합 다층 등의 방법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데리다가 논의한 흔적, 차연, 상호 텍스트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線)적인 요소로써, 면이나 공간의 중첩도 결국은 선의 중첩, 즉, 축의 중첩이나 치환의 결과로 인식된다. 이것은 형태의 표현 방법상의 특징의 하나인 메아리 효과<sup>3)</sup>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 · 형태의 왜곡

해체는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기하학적 완전성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기법을 이용한다. 형태 단편화는 수직과 수평을 탈피하여 중력의 왜곡과 함께 비정형적인 추상적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왜곡된 형태의 원, 중심을 찾을 수 없는 원호(圓弧), 지속적으로 변

1)이광래, 미셀푸코, 민음사, 1989, pp.13-29.

2)이지민, 피터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호, 1999, p.148.

3)Herbert Read, 디자인론, 정시화 역, 미진사, 1979, p.185.

화되는 곡률을 가진 곡선들, 평행이 깨어진 선, 그리고 부정형 적 형태 등이 사용된다.

· 스케일(scale)의 변환

스케일의 변화 방법은 형상의 변화 없이 크기가 변하는 변형과정이다. 이것의 실행 과정은 선택된 개체를 원래의 흐름에서 독립시켜 다른 위치로 옮기고, 이 형태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변화시켜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기본형에 해당하는 형상이 지나치게 되는 단편적 기억이나 의미를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의 흐름과 절연시킴으로써 의미는 유보되고 형태는 자유롭게 된다.

· 형태의 유희

형태의 유희는 이미 언급한 '차연'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차연은 차별화 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지연된다는 이중적 개념에 의해 어떠한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는 완전하게 부합될 수 없다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철학적 어휘이다. 데리다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개념들은 차이(difference)들의 유희를 통해서 서로를 언급하거나 다른 개념들을 언급하는 연쇄적인 체계 속에서 명시된다.

### 3. 키치의 현상적 고찰

#### 3.1. 키치의 출현과 전개

사물의 대상에서 디자인 본래의 기능에서 유래하지 않은 애매한 속성을 반영하면서 기능적 합리성과 비이성적 모순, 또는 예술적 창조성과 진부함 사이에서 매우 유동적인 모습으로 평가 자체를 어렵게 한다. 바로 이러한 부류가 오늘날 키치(Kitsch)라는 용어에서 유래하는 사물과 이미지의 세계인 것이다.<sup>4)</sup> 여기에는 '디자인'의 개념 본래의 기능에서 유래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일찍이 키치에 대해 언급한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키치를 전위(avant-garde)에 상대되는 '후위'의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키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미적 감수성에 근거하므로 '취향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취향'이라는 단어가 미적 감수성의 척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프랑스에 서부터이다.<sup>5)</sup>

키치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 독일 뮌헨의 미술 싸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어원적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sup>6)</sup> 단어 자체만을 본다면 '싸게 하다 또는 싸게 만들다'를 뜻하는 독일어 'kitschen'과 또는 '진품이 아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것은 또한 "서구 자본주의 시민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sup>8)</sup>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 된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계층들은 새로운 공장이라는 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산업제품을 소비하는 도시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여분의 수입을 얻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중류 계층으로 상승하는 '사회적 지위 이동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이들 계층들은 부자와 귀족들이 그들의 부와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수미술을 사용하는 모습과 방법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키치'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화가 키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대량생산된 미술품과 같은 오브제들의 증가였다. 새로운 공장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하류 계층들이 쉽게 구입 할수 있는 미술품과 같은 물품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키치 미술은 종래의 고상한 소위 '박물관' 미술이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대중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줌으로써 생활과 같은 예술(life-like art)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이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할 때, 그들간의 연결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 '팝아트(Pop Art)'에 의해서였다. 팝아트는 사회 속에서 독창성을 추구했으며, 종전의 미술의 개념의 경계를 넘어선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팝 아트가 미술의 기반을 대중문화의 내부에서 마련했다는 의미이며, 거기에서 큰 소득을 거두었다.

#### 3.2. 키치와 하위문화

키치와 함께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되는 것이 하위문화라고 불리우는 흐름이다. 기저문화, 또는 하위문화라고 번역되는 서브 컬처(subculture)의 속성은 그것이 비록 상품형식으로 획일화된 유행을 타게되는 스타일일지라도 그 안에는 기성문화에 대한 식상함과 윤리적, 제도적 획일성에 대한 거부감 잠재되어 있다.<sup>9)</sup>

하위문화의 일반적 특징은 이러한 거부감을 내면에 가지면서도, 하나의 토대를 형성해서 기성문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표현되는 방법은 내용상의 요소들보다도 전달방법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 기저문화의 창조와 소비는 기성세대보다는 대부분 젊은 계층들에 의해 이루어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저문화를 소비하던 젊은 층은 장년 층으로 성장해가므로 기저문화의 소비계층이 두터워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루어온 하위문화들은 그것들이 모두 지배적으로 노동계급의 문화들이라는 사실과 별도로 또 하나의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과시적 소비의 문화들이다. 하위문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금기된 의미를 소통시키는 것은 차별적인 소비예식을 통해서, 스타일을 통해서이다. 하위문화를 전통적인 문화 구성체 들로부터 구별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들이 하위문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4)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출판사, 1997, p.177.  
5)앞의 책, p.179.  
6)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사회·문화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p.31.  
7)김민수, 앞의 책, Ibid, p.182.

8)Abraham Moles,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역, 시각과 언어, 1995, p.11.  
9)Dick Hebdige, 하위문화, 이동연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8, pp.102-109.

꿈의 작업, 콜라주, 기성품 등등과 같은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급진적인 미적 실천들은 확실히 이 방식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해체이론의 '혼적' 개념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적인 부정부주의적 담론 양식이다. 펑크라는 양식 또한 '마음의 동요'와 '형태의 변형'을 통해 의미를 과열시키고 재조직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패션산업의 고급화 성향에 의해 진부한 키치로 버려진, 예를 들면 표범기죽 모양과 같은 저가의 모조 제품들은 펑크 쪽에 의해 선택되어, 모더니즘의 통념과 취향에 대한 반향으로 변형되었다. 머리칼을 눈에 띄는 색으로 염색하고, 티셔츠와 바지는 여러 가지 색의 지퍼와 외부로 노출된 재봉선 들로 자신들의 구성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것들은 별스럽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하위문화의 영역에 존재하는 키치, 나아가서 전반적인 해체의 경향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 4. 오브제의 고찰

### 4.1. 오브제에서 스타일의 의미

디자인에서 스타일의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형태가 파생하는 의미의 문제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기인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인공물 또는 그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단지 취향, 또는 유행의 견지에서 말하려 한다면 순수한 형식주의적 대안 이상의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게된다.<sup>10)</sup>

디자인이 스타일의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장점은 디자인을 그 자체의 원리들로부터 형상화 되어야할 복잡한 현상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비평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의 이슈를 디자인의 주된 논의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정하려는 시도는 디자인의 본질적 측면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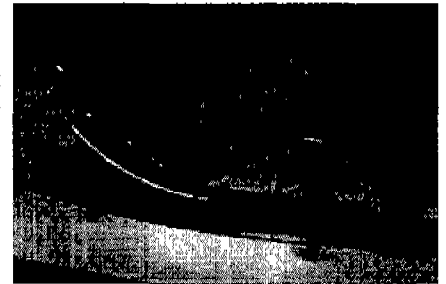
디자인의 스타일은 한편으로 디자이너가 만드는 인공물-그것이 공간 오브제나 그래픽 이미지든 간에-과 사회가 그 인공물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에 대한 수용 사이의 교환 작용으로 파생하는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스타일은 인공물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경험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인식 작용에 의해 파생되는지에 관한 생성적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인공물들은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되어진 상징 체계로써 인간 환경을 구축한다.<sup>11)</sup> 역으로 인간은 자신들에 의해 구축된 상징체계를 해석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로 인해 모든 유형의 사건을 경험하고 학습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체계가 취해야할 기본 형식뿐만 아

니라 그것이 어떻게 지각되고 경험되어야 하는지를 예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림 1> 모던 디자인의 오브제 : 게리트 리트 벨트(Gerrit Rietveld)



<그림 2> 모던 디자인의 오브제 : 미스 반 데 로우에(Mies van de Rohe)



<그림 3> 모던 디자인의 오브제 :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 4.2. 공간 오브제의 분석

많은 오브제들 중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가 행해지는 것은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오브제에서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 중 의자는 그 기능과 의미에 있어서 많은 함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호적 측면에서 능기(能記; signifiant)의 다양성은 기능적인 한계에서 그다지 많은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해체 유형은 주로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그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해체 등의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표현 양식의 해체는 키치적 요소와 공유점을 가지기도 한다.

#### (1) 의미론적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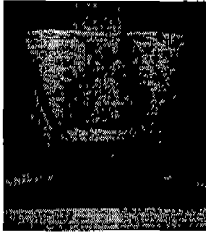
오브제가 가지는 기본적 기능이나 정의를 고정 불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가 중심이 되는 해석방법에 의한 현상이다. 게타노 페체(Gaetano Pesce)의 펠트리 চে어(Feltri Chair)는 기존의 디자인적 형태의 의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앉기 위한 것'과 '몸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의 의미 확대와 변화에 의한 차연(difference)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그는 착좌부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옷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세탁은 물론 다른 색채의 것으로 교환 가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0)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p.38.

11)Arnold Gehlen, Der Mensch, Athenaum Verlag, 1995.

12)김민수, 앞의 책, p.41.

전체의 형태도 직물과 그 부드러운 질감에 의하여 '옷'의 의미에 중점이 있는 모습으로 기존의 의자라는 기호의 유형을 거부한다. 그러나 형태의 구성에 있어서는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기능적 요소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4> 게타노 페세의 펠트리 의자, 1987.<sup>13)</sup>

한편 모던 디자인에서 절대시 해온 황금비례(The Golden Proportions)의 문제도 사물의 구성원리를 사물과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의미의 문제'<sup>14)</sup>로 파악하여 이 비례의 절대성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심리학자 다니엘 벌린(Daniel Berlyne)은 인간의 미적 행동은 심리학의 각성수준과 관계 있다고 파악하였는데, 이것은 디자인이 언제나 변함없이 단순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사물에 대한 각성 잠재력은 단순성과 복잡성, 질서와 변화, 또 균형감을 추구하여 변화된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성수준은 습성화되기 때문에, 친숙도가 높아지는 반면 선호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고 참신한 형태가 요구된다. 제임스 에반슨(James Evanson)이 디자인한 의자는 바로 이러한, 절대시되던 황금률과 각성수준과 선호도에서의 기존의 원리들을 해체시킨 예이다.



<그림 5> 제임스 에반슨의 의자, 1986.

### (2) 재료에 의한 형식의 해체

과거 모던 디자인의 사물 형태는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뒤에 남겨진 '잉여 가치 또는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다.<sup>15)</sup> 그러므로 제품의 형태는 생산단가의 경제성과 물리적 기능의 최적화라는 견지에서 제품의 구조적 양상에 불과한 표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물의 형태를 인지의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인지적 문제와 함께, 신소재의 출현은 디자이너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존 재료들에 대한 상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제품 디자인의 주된 원리는 재료의 본질을 파악해 그 속성에 맞추어 사물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출현한 신소재들에서 재료의 순수한 본질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신소재의 출현은 사물의 형식성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수정하게 하고 있다. 합성수지를 열 용착시켜 입힌 단풍 목은 합성수지가 가지는 탄력성과 성형의 자유도, 그리고 나무의 섬유질이 가지는 유연성과 강성의 결합으로 기존의 의자에 대한 형상적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이것은 재료에 의한 구조와 형태 등의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의자에 대한 의식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림 6> 라이네이트 코팅된 백단풍목으로 만들어진 의자, 1995.<sup>16)</sup>

### (3) 은유와 표현방식의 해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이끌어간 모던디자인의 주된 이념도 이성적 분석에 의한 사고가 기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이렇게 이성적 의해 억제되고 있었던 감성에 의한 상상력과 도전이 표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디자인에서는 이성과 감성, 또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에 의한 감수성은 대치적 관계로써 보다는 보완적 관계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저속하고 질 나쁜 취향으로 인식되어 온 키치와 같은, 보다 대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적 역할이 강조되어 사물과 이미지의 소통과 이해 방식은 객관성보다는, 철학적 깊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기호의 의미는 형식적 수단보다는 지시 체와 지시 대상의 전위, 교란, 치환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7에서 보여진 의자와 티 테이블은 거미줄의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듯한 거미의 모습을 은유적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는 과거에 가구가 가지고 있던 기능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 형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의자에 앉은 사람과 티 테이블에 놓여진 찻잔과의 관계를 철학적 의미와 먹이와의 관계로 치환시킨 예이다. 또한 이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13)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출판사, 1997, p.139.

14)앞의 책, p.111.

15)앞의 책, p.136.

16)Paola Antonelli, Mutant Materials in Contemporary Design, 뉴욕현대미술관, 1995년

분히 감각적이고 말초적 어필을 가지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김민수, 티 테이블 「거미와 거미줄」, 1994<sup>17)</sup>

(4) 기존 관념의 해체

공간 오브제들 중 특히 가구는 그 재료와 형태에 있어서 그 기능과 구조의 효율성이 우선 시 되어 왔고, 그에 따라 형상과 색채, 마무리 방법 등이 결정 되어왔다. 그러나 가구의 물리적 기능 이외에, 형상적 요소들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특성들이 형성하는 심리적 기능 역시 가구의 기능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심리적 기능에서 보다 장식적이거나 대중성이 있는 표현 양식을 취하게 된다.

그림 8의 화장대와 의자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재료의 사용은 이제까지의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의식의 표현에서, 보다 증가된 대중적 이해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 삶의 의미를 형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키치나 반어법적 은유인 패러디 등과 같은 대중적 스타일이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 해 준다.

기능적 요소로써 가장 중요한 거울의 면을 2차원적 오브제인 새와 구름의 형태로 구성한 것, 의자의 측면 형상이 사람의 얼굴 형상을 추상화시킨 형태로 거울을 향해 다가서는 행위의 상징성과 이와는 상대적으로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무생물적이고 청지된 의미의 거울은 이러한 은유적 요소의 표출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료에도 가벼우면서 빛을 산란시키는 효과를 낸 그라인딩(grinding) 처리된 금속 표면은 반짝임에 의한 감각적 요소에서의 즉각적 상징성을 보여준다.



<그림 8> 김민수, '너와 나 사이에' 화장대와 의자, 1993.<sup>18)</sup>

오브제에서의 해체의 표현 또는 의미 유형은 그것이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견 그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양식 또는 흐름으로 파악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 역시 오늘날의 다양성에서 유래된 '해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체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해체의 유형 분석

해체의 유형	해체의 표현 방법	디자인 요소
의미론적 해체 재료에 의한 형식의 해체	기능의 확대와 변질 신소재의 채택과 구조의 변화 소재와 형태의 관련 변화	기능의 재 해석 구조에 의한 형태의 변이 은유의 구체화
은유와 표현 방식의 해체 기존관념의 해체	키치와 동화적 요소의 채용 형금비례의 절대성 부정	이상적 비례 탈피 감각적 요소 부각

5. 결론

구조주의와 탈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결 선상에 있는 해체주의는 오늘날에 와서 단지 사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체주의의 특성은 그 자체가 이미 '해체'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킨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현상만을 고찰하면 그 표현 양식이나 외형적 디자인 요소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찾기 어려우나, 해체의 표현 유형을 살펴본다면 의미와 재료, 그리고 표현 방식에 대한 해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여러 유형의 해체는 그 표현 방법이나 디자인 요소에서도 해체와 변질, 치환, 탈피, 키치, 재해석 등의 다중적인 요소와 방법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러 방법과 유형들 중에서 주로 오브제의 형상과 관련된 양식들이 표현되는 경로에서 해체와 해체를 위한 기타의 방법들 중 키치와 은유적 패러디의 형식들이 부각되어 제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키치는 해체적 요소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서 이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과거 이성중심의 모더니즘에서 감성과 직관, 그리고 대중적 이해와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의 부각에서 유래된 현상으로, 사물의 표현 형식에 중점이 두어진 양식이다.

참고문헌

1. 이광래, 미셀 푸코, 민음사, 1989.
2. 이지민, 피터아이젠만의 해체주의 이론과 작품의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호, 1999.
3. 허버트 리드, 디자인론, 정시화 역, 미진사, 1979.
4.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출판사, 1997.
5. 아브라함 물,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역, 시각과 언어, 1995.
6. 덕 헵디지, 하위문화, 이동연 역, 현실문화연구, 1998.
7.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8. 아놀드 겔렌, Der Mensch, Athenaeum Verlag, 1955.
9. 파울라 안토넬리, Mutant Materials in Contemporary Design, 뉴욕현대미술관, 1995.
10. 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사회·문화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7.
11. Santa Edwards and the editors of ID Magazine, Product Design 2, PBC International, 1986.

17)김민수, 앞의책, p.150.

18)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11.